

# “새 정부 균형발전, 호남 낙후·격차 해소가 시발점 돼야”

### 수도권에 밀리고 영남·충청권에 치이고...60년 소외 낙후도 최악 미래 신성장산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국책사업도 호남 배제 여전 지역낙후도 무시하는 국가제도·시스템·예타 조사 전면 손질해야

광주와 전남도는 민선 7기 들어 광주형 일자리와 AI(인공지능) 중심도시, 신재생에너지 등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를 각각 100년 미래를 책임질 역점 사업으로 제시하고, 지역 미래발전의 교두보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와 경제, 산업 등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 밀리고, 영남권과 충청권에 치이는 등 최악의 낙후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고, 전남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마저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호남 소외론·낙후론이 반복되는 이유다. 특히 이번 대선은 그 어느 선거보다 성·지역·세대를 편 가르는 분열의 선거였다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낙후한 호남을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호남의 분야별 낙후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침착한 호남의 현실**=광주·전남의 경제 상황은 수도권·영남권·충청권 등과 비교하면 참혹한 수준이다. 정부의 편향된 재정지원이 지역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1967년부터 2018년까지 61년 동안 전국의 지방재정을 분석해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에 64.1%가 집중됐다. 이 기간 수도권에는

1382조원, 영남권 1052조원의 지방재정이 집행된 반면 호남권에는 600조원이 배분되는 데 그쳤다. 열악한 지방재정은 곧바로 호남 경제의 침체로 이어졌고, 현재 진행형이다. 전국 대비 기준으로 지역내 총생산(GRDP)만 봐도 광주·전남 경제의 심각한 침체 현상이 확연히 드러난다.

1987년과 2019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 기간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은 53.6%에서 57.6%로 증가했으며, 충청권도 10.7%에서 13.7%로 올라갔다. 하지만 10%대인 광주·전남 등 호남권은 증가 커녕 오히려 12.3%에서 9.7%로 감소했다. 그나마 민선 7기 들어 광주의 2017년 대비 2020년 기준 GRDP, 1인당 GRDP, 1인당 지역 총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한 점이 위안이 되고 있다.

◇**미래 신성장산업·과학기술 국책사업도 호남 배제**=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신성장산업과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R&D) 국책사업 등의 호남 소외의 현상도 여전하다. 광주·전남은 그동안 정부의 신성장 산업 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됐으며,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 광주는 인공지능,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선정했을 뿐이다. 광주는 여전히 자동차, 광산업, 가전사업이, 전남은 석유화학산업, 농수산업 등 1970~80년대 산업이 주력 산업이다. 이들 과거 산업 대부분은 시설 낙후와 함께 침체의 길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로 들어섰다. 분석이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과학기술 관련 투자 사업 역시 호남 소외의 현상이 심각하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최대 소비처인 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기관도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에 몰려있다. 실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25개 중 호남권에는 광주에 세계김치연구소, 전북에 한국식품연구원 등 2곳이 전부다.

500억원 이상 투입된 과학기술 대형 인프라도 충청권 7곳, 영남권 6곳인데 반해 호남권은 3곳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도 호

남을 제외한 타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20조 4597억원 중 광주 4800억원(2.4%), 전남(1.6%)은 320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은 6조6000억원(32.6%), 대전 5조 8000억원(28.6%), 충청·세종 1조 6000억원(8%), 부산·울산·경남 3조원(15%) 등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을 보면, 수도권 90조3144억원, 충청권 82조4892억원, 영남권 38조

8521억원인 데 반해 호남권은 15조원에 불과했다.

◇**지역낙후도 무시하는 국가제도·시스템 전면 손질**해야=전문가들은 심각한 지역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역별 발전 격차를 무시한 국가제도와 시스템 등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대형국가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시 지역간 발전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과 선정 절차의 정당성을 우선시하는 경쟁공모가 일반화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 주도의 각종 사업지 등을 선정하는 위원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다. 관성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편향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의 완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타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역낙후도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처럼 낙후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선 예타 시 오히려 낙후도를 높은 가산점 항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공공투자평가컨설팅센터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수도권은 자체 자원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국비 지원 중심으로 예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도 호남 등 낙후지역에 높은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특히 호남의 경우 이미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과 국가 주도 미래산업 유치 등을 놓고 경쟁한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낙후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윤석열 정부 호남 홀대 있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 취임사에 국민 여망 담은 것

### 미래 위한 밀알 역할 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오는 5월 10일 취임식과 함께 공식 출범하게 된다.

지난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보였다. 이념 대립이 이념 대립이 어떠한 내용의 취임사를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곧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광주일보는 16일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은 박주선(사진) 전 국회부의장과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수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은 좀 의외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사에 향후 5년의 국정 철학과 가치,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하며 밀어붙였다고 요청, 수락했다. 내 능력이 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다. 취임준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알리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

-취임식과 취임사에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담으려고 한다. 코로나 19 대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겠다. 윤 당선인이 강조하셨던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 통합과 화합에 대한 국정 비전도 담아 내겠다.

-호남 민심의 저변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하지만 그래도 호남에서 윤 당선인이 보수 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호남도 변화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다. 의미 있는 득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도 몇 차례나 호남 배려를 약속했다. 저는 대선 당시, 윤 후보에게 호남을 수익자를 하는 보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호남 홀대는 있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능력이 부족하지만 제언이 온다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밀알의 역할을 하겠다. 더 이상 지역 차별이 없는,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가진 역량을 모두 쏟아 붓겠다.

-윤 당선인이 지역 배려보다 능력 우선의 인사를 강조했다.

▲같은 실력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왕이면 지역 배려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능력이 처지는데 지역 배려를 위해 발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거 정부에서는 측근들을 챙기면서 불 타기로 지역 배려라고 끼워 넣기 식의 인사가 종종 있었다. 이제 이런 식의 인사는 배격해야 한다. 호남 출신의 실력 있는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대선 끝, 지방선거 시작...출마선언 봇물

### 광주시·전남도의원 출사퇴 예고

### 일부 지역에선 벌써 ‘네거티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오는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전야 광주·전남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리고, 자치단체장 출마에 나서는 광주시의원들의 출사표도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시작되고 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부수석은 17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광주시장 출마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이날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광주시의회에서 광산구청장 출마 선언을 한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김익주·김학실 광주시의원, 22일에는 윤남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각각 광산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23일에는 황현택 광주시의원, 24일에는 김보현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이 각각 서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경선전에 돌입한다.

내주에 규정장 출마 선언을 하는 김익주·김학실·황현택 광주시의원은 이번주 또는 다음주에 시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에서는 이종호 국민의힘 영암·무안·신안 당협위원장, 16일 전남지사 선거 출사표를 던지는 등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17일에는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서재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강진군수 선거 출마선언을 예고하는 등 22개 시군 곳곳에서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민중당 텃밭으로 꼽히는 전남의 경우 일부지역에선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언론이 최근 나주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 가운데 특정한 ‘박근혜 청와대 근무 이력’을 거론하며 적절성 논란을 제기하자 해당 후보자 측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후보자 측은 관련 보도 내용을 ‘흑색선전’으로 규정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입장문을 언론에 냈는데, 지역 정치권에선 나주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가 20명에 가깝고 그 중에서도 유력 후보가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경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후보자간 공방의 하나로 여기는 기류가 강하다. / 최권일 기자 cki@/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http://www.greenfuneral.kr/

光州市民의 장례식장은, 그린장례문화원!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의 名家

광주시청에서 10분, 용전사거리에 있습니다.

사전상담하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임소문 6선!

1. 호남·88·남해IC 진출구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
2. 동시 주차 1천대 분관 일체형 주차타워
3. 동시 접대 350명 장공 등 VIP전 객실 13개소 완비
4. 가격은 저렴하고 품격은 최고의 고감도 의전서비스
5. 세계김치문화축제 대통령상 수상 | 음식 맛 최고
6. 창업주 아너소사이터 정희원 국민나눔대상 수상

상담문의 250-4455

광주광역시 하서로 663길 97(용전동 1213-17)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매주 금,토,일 광주출발 셔틀버스 운행

**당일투어 1인 13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19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